

[속보]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이틀째 '긴장고조'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6.21 03:09

48시간비상국민행동 이틀째 촛불문화제에 6만 인파 집결 '이명박정권' 강하게 규탄

[3신대체/20:20/48시간 비상국민행동 24시간째] 저녁 8시25분 현재 태평로에 6만 인파 운집,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대미협상 극력 비판, 집회참가자 수 놓고 경찰 1만명으로 또 축소발표 빈출

[사진8]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이틀째이고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태평로 전차선에 본무대를 설치하고 행사가 열렸다.

[사진1]

저녁 7시20분 현재 주최측은 참가자 수를 5만으로 발표했고 경찰은 1만명으로 축소 집계해 물의를 빚었다. 저녁 8시25분 현재 다시 집계된 참가자 수는 6만명 이상에 이른다고 대책위가 공식발표했다. 한편, 경찰은 110개 중대를 동원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행사 사회는 박석원 광우병대책위 공동상황실장이 맡았다. 사회자는 행사 돌입에 앞서 “재협상을 실시, 속임수 중단, 이명박 심판”구호를 참가자들과 제창하며 이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 대미협상이 또 다시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총파업에 임하는 민주노총 결의를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보수언론과 정권이 정치파업 운운하며 탄압하지만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맘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있게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건강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구속되더라도 총력투쟁한다고 거듭 강조해 5만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시민참가자들은 이석행 위원장 발언이 끝나자 "민주노총 힘내세로"라며 격려 합성을 쏟아냈다. 민주노총과 시민이 일체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다음은 각 연사들 발언전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광우병 쇠고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 저지한다고 하니까 민주노총 엄청 할 일 없다고 조중동을 비롯한 한국경제신문들이 깎아 내렸지만 시민들이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그 투쟁 힘있게 완수했다.

고시 강행하면 즉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이 한겨레, 경향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한 다수 언론들이 민주노총 정치파업하면 저를 포함한 간부들 싹 쓸어가겠다고 협박 공갈하고 저희들에게 하지 못할 욕 다 하고 있지만 국민 60%가 총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네티즌, 시민들의 위대한 투쟁에, 위대한 정신에 복무하겠다는 가룩한 생각이다.

국민 건강권, 주권 지키다가 감옥에 가더라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총파업 투쟁을 힘있게 하겠다. 저희들이 임금문제를 갖고 투쟁하면 늘 욕하던 보수언론과 정권이 국민건강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니까 정치파업 운운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하는 이유는 촛불국면에 편승해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이 키웠던 촛불, 아버지 어머니들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놓을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총파업 투쟁한다.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났지만 되레 비정규노동자, 서민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명박 정권 기조 완전히 바꿔 놓을 때까지 민주노총이 촛불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지 못해 죄송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신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에 맞서 총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음도 말

씀드린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정부가 또 한 번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 정부가 스스로 협상을 90점짜리 협상이라고 했다. 알고봤더니 만점이 아니라 천점이었다.

첫째 쇠고기 안전성 핵심은 SRM이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에서 SRM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속였다. 뇌 눈 머리뼈 척수가 안 들어온다고 했다. 실제로는 머리뼈가 조금 잇는 것은 머리뼈가 아니라고 국민을 기만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다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협상을 했다. 곱창 등 회수육에 광우병물질이 들어있는 부위를 수입토록 허용했다.

둘째 30개월 이상 안 들어온다고 했다. 실효성 없는 거짓말이다. 월령제한 다 풀었다고 얘기했는데, 30개월 이상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QSA라는 품질관리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KS마크 찍듯 미 도축장에서 자율적으로 찍는 게 QSA이다. 미국이 보증하지 않는다. 이걸 갖고 30개월 월령이상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 걸러낼 수 없다. 마치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들 협상카드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 원성만 산다.

셋째 검역주권 강화했다고 하는데 미 도축장 현지조사 하지도 못한다. 문제가 생겨도 즉시 취소하지 못한다. 하나도 제대로 협상하지 않았다. 언론플레이만 하고 조중동과 연합뉴스 동원해 협상 잘 한 것처럼 대국민사기극을 펼쳤다.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려면 재협상통해 수입위생조건 독소조항 모두를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이번 추가협상은 또 다른 대국민사기극일 뿐이다. 90점짜리는 천점만점의 90점일뿐이다.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재협상 이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다.

이상훈/서울시민=시청에 나오면서 각성했다. 10일 70만이 모인 이후 여러일들이 있었다. 인터넷카페 회원과 아고라가 조사를 받았다. 보수세력의 총공세가 있었고 촛불도 줄어든다는 등 흥흥한 소문이 있었다. 한달동안 계속 촛불을 들다보니 시청과 광화문에 촛불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기자회견과 대책위의 정권퇴진 불사를 보고 기대하며 이 날을 기다렸다.

이명박은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들으며 촛불을 봤다고 했다. 아침이슬을 들었는지 몰라도 재협상하지 않는 한 퇴진시키겠다는 우리 목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이명박은 꿈수를 부리고 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 건강주권을 지키고 광우병위험물질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지 30개월된 소 수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30개월 이상 수입 중단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마치 30개월 이하만 하면 면죄부라도 받는 것처럼 할 만큼 했고 촛불을 내려야 한다고 국민을 현혹한다. 국민이 바보인가.

광우병위험물질과 우리 건강주권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 아닌가. 이명박정권은 사기꾼 정권이고 조삼모사 정권이다. 이명박퇴진이니 이런 것들 국민들 여론 속에서 따라가려 한다. 한 시민으로서 아이와 함께 촛불을 들고 나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이 되고자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정직한 사람이 떳떳한 대한민국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

촛불은 꺼질 수가 있다. 저는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장기화되고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우리 뜻은 살아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촛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명박이가 국민 앞에 무릎을 꿇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 촛불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을 퇴진시키자. 우리 아이와 함께 광장에 나와 촛불 들겠다.

김지윤/고려대 재학생=망언폭탄제조기 주성영의원이 100분토론에서 히트를 쳤다. 네티즌은 그를 주열사로 부른다. 주열사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이 광장에 모일 것이라고 말한다. 주성영은 천민민주주의를 말했다. 이명박 기자회견 24시간도 안 된 말이다. 그 본색을 알 수 있다. 100분 토론 그 시간에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던 저를 학생도 고대생도 아니고 정치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2년전 출교당했다가 4월 복교했다. 주성영은 한 마디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전직 공안검사다운 발상이다.

저는 주성영 발언이 저만의 명예를 훼손한게 아니다.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다. 주성영은 촛불시위대를 흠집내기 위해 저를 대국민사기꾼으로 만들려했다. 진짜 대국민사기꾼은 누구인가? 미친소를 수입하고 공기업민영화를 선진화로 말하는 이명박이가 대국민사기꾼 아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로서 자격있다.

김종훈이가 미국에 날아갔지만 SRM를 제거시키지 못했듯이 대한민국에서도 2MB라는 SRM을 완전히 제거시켜야 한다. 오늘도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누가 촛불이 꺼진다고 했다. 아무도 촛불의 힘을 꺼뜨릴 수 없다. 살수차로도 소화기로도 끌 수 없다. 청계광장에 모였을 때 외쳤던 구호처럼 될 때까지 모이자. 건강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들고 될 때까지 모이자. 저도 촛불광장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겠다.

김경영 영화감독=한나라당 주정뱅이 국회의원 하나가 촛불집회를 두고 천민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가당치도 않다. 그 사람

이 주정뱅이로 유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모르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천심이다. 하늘'천' 마음'심', '천민' 맞다. 지난 촛불을 참여하면서 매일 밤 웃고 울며 보냈다. 어떤 시나리오 작가도 감독도 연출할 수 없는 장면을 보며 전율하고 감동했다.

지난 2006년, 07년 한미에프티에이에 반대하기 위해 영화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스크린쿼터라는 문제 때문에 한미에프티에이가 얼마나 무서운 가를 알게 됐다. 한 시민으로서 아빠로서 용납할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올해 촛불집회 시작을 보면서, 영화인들 어디갔냐고 여러분들이 말했다. 당시 나와 있었고 우리가 나설 상황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워가면서 연출하는 장대한 광경을 보면서 한 자락에 같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다.

촛불을 너무나 사랑한다. 근자에 들어 촛불열기가 식고 있다는 등 조중동 짜라시와 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한나라당 행태를 보면서 이 촛불이 꺼지는 일은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 세계 최고 시민이다. 가치 최강의 시위대다. 금지와 자부심을 갖자. 우리 힘으로 우리 역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바꿔 놓을 수 있는가를 자각하자. 절대로 촛불이 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 물대포를 온 몸으로 맞으면서 온수를 달라고 외치는 시위대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경찰 방패와 군화발에 밟히면서도 웃고 있는 시위대는 어느 세계에도 없다. 끌려가면서도 닭장차 투어라고 말하는 시민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촛불은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조악한 가치관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국민 10%도 안 되는 가진 자들이 더 갖게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맞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촛불 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의 힘을 믿는다. 영화인들도 시민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촛불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원히 집권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한다. 함께 하겠다.

[2신/07:30/48시간 비상국민행동 12시간째] 세종로네거리 시민들 뜬눈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이명박정권 규탄 한목소리

[사진6]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이틀째인 6월21일 날이 밝았다. 지난 저녁 7시를 기해 돌입한 비상국민행동이 12시간째를 맞았다.

어제(20일) 촛불시민들은 촛불집회와 행진에 이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세종로 사거리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시민 5명이 연행됐고 수 명 시민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횡단보도까지 막아서며 통행을 방해하자 시민들은 연행자 석방과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21일 새벽 5시30분 경 세종로 사거리 비각 앞에서는 '다인아빠' 소형 트럭이 달려와 밤샘농성을 벌인 시민들에게 라면과 수박, 커피 등을 제공했다. '다인아빠'는 최근 여의도 KBS 앞에서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 음모를 규탄하는 촛불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시민 자원봉사자이다. 이날 새벽 광화문에서 여고생들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단다.

오늘 '다인 아빠'에서는 밤샘농성에 지친 촛불시민들에게 직접 끓인 라면과 김치, 커피·녹차 등 차류와 초코파이 등을 제공했다. 또 5백개가 넘는 라면을 준비했다. 밤새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이명박 정권 물러가라"고 외친 시민들은 '다인아빠'가 끓여주는 라면 등으로 허기를 채우며 간밤 상황들을 평가 중이다. 이들에게는 시원한 수박이 후식으로 나눠졌다. 이날 아침, 양복 차림을 한 젋은 남성은 '라면 한끼 값으로' 10만원권 수표 한 장을 자원봉사자에게 건네는 등 밤샘농성을 벌인 시민들 사이의 훈훈한 정이 오간다.

[사진7]

20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세종로 사거리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는 정지호(28세, 계약직 아르바이트) 씨는 "어른들이 똥싸놓은 것을 어린 학생들이 치우러 나왔고,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책임져야 할 때이며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조차 하지 않아 반성하는 마음에서라도 촛불을 지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세운 국민대중 모두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씨는 "우리가 벌이고 있는 촛불시위를 일컬어 빨갱이니 좌파니 하는데 그렇다면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자유당 시절 4.19운동도 정권 퇴진이고 반정부시위 아니었느냐"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을 성공한 씨이오(CEO, 최고경영자)라며 국민을 현혹한 언론도 큰 책임이 있다"며 언론 정론보도 중요성을 지적한데 이어 "광우병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물, 전기, 가스, 의료, 교육 사유화 문제 등도 국민 삶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 모든 것이 국민 뜻대로 될 때까지 촛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밤샘농성에 참가한 오예슬(21세, 간호조무사) 씨는 "저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관계로 평일에는 나오지 못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밤잠 못자며 힘들고 피곤하게 길거리에서 농성을 벌여야 하는지, 저 전경들도 아무런 잘못 없이 밤을 새고 버스 안에서 꾸그리고 자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난다"며 이명박 정권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다.

6월21일 아침 7시10분 현재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 일대에는 밤샘농성을 벌인 촛불시민 중 약 1백 여명이 남아 뜬눈으로 경찰 동태를 살피고 있다. 7시 7분경 경찰은 일단 경찰차벽 일부를 되돌려 경복궁 방향 차로를 개통했다.

[1신/03:20/6월21일/48시간 비상국민행동 8시간째] 시민들 세종로네거리에서 통행권 보장 요구하며 경찰병력과 대치, 인도변에 서있던 장애인 1명 비롯해 시민 5명 폭력연행되고 수명 부상당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한 촛불시민들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권에 대해 거센 외침을 이어가고 있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첫날인 20일 촛불문화제와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21일 새벽 3시 현재 세종로 사거리 일대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20일 평화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서울광장에 모였고 시민 일부는 세종로 사거리 교보문고와 동화면세점 사이에 설치된 전경버스 차벽 앞에서 항의농성을 진행했다.

밤 10시 경 인도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던 여고생들에 대해 경찰이 경고방송도 없이 폭력진압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광장 시민들이 즉각 달려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를 벌였다.

[사진2]
경찰은 “우리 경찰은 시민을 연행하지 않았다. 서울광장으로 가서 평화집회를 마무리하라. 그러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연행자를 풀어놔라. 그럼 우린 가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은 “우리가 연행한 사람은 중대장을 폭행했으며 ‘일반 시민’이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댔다.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경찰버스 타이어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맨 앞에 있던 시민 한 사람(50대 남성)이 무리하게 손힘을 주고 있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튕겨져 나와 왼쪽 손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시민들이 물러설 기색이 없자 경찰은 거듭 경고방송을 통해 “잠시 후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시위자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검거하겠다. 검거작전이 시작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협박했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 “아까 고등학생들이 폭력시위를 했나?”라며 계속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21일 새벽 1시경 경찰은 전투경찰 수 백 명을 투입해 시민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비각 앞쪽 횡단보도 주변으로 밀려난 시민들은 “이명박은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며 거세게 저항했다. 전경들이 횡단보도에 푸른 등이 들어와도 오가지 못하도록 통행을 막자 화가 난 시민들은 “왜 못 건너가게 하느냐?”, “통행권을 보장하라”, “경찰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항의를 벌였다.

[사진5]
시민들은 세종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투경찰과 2시간 여 대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40대 남성)이 전경들에게 밀려 넘어져 부상을 입고 119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경찰에 포위돼 오도 가도 못하는 시민들은 경찰 측에서 시민들을 향해 카메라 촬영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경찰 관계자는 공공연히 확성기에 대고 “찍어, 나중에 조치하게 다 찍어”라며 촛불시민들을 위협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경찰에 대해 다른 경찰이 “그 사람들하고 말 그만해라, 밤새워 말해봤자 남는 것 하나도 없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자”며 시민들을 조롱하기까지 해 거센 반발을 샀다.

새벽 1시40분 경 시민 두 사람이 전경 차 속으로 연행되는 모습이 시민기자단 카메라에 찍힌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3]
[사진4]
또 2시18분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로 보이는 20대 남성이, 2시27분에 40대 남성이 각각 “왜 횡단보도를 막느냐”고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기자들에 대해서도 취재방해를 일삼아 시민들 항의를 받기도 했다.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지자 시민들은 경찰병력을 뚫고 '파란불, 파란불, 이명박 퇴진'을 외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며 항의를 이어갔다.

새벽 3시20분 현재, 이 시각까지 파악된 연행자만도 5명이다. 시민들은 새벽 3시 현재 세종로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연행자 석방과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는 항의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세종로 사거리 경복궁 방향으로 경찰이 전경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쌓아 차량통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울광장에서는 수백명 시민들이 산개해 세종로 사거리 상황 생중계를 시청하거나 텐트 혹은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